

건축문화 **시사**

Vol.056 10, JULY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시사**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시사'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 7 05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인터뷰_사람&issue
 광주/(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대시민 안전 결의대회” 개최



유럽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 프랑스 파리편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진행



시론 02
 여성건축인의 역할과 기대 _ 김희순

특별보도 03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선 광주건축사회원들...

설계경기 04
 전북 익산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사람 & issue 05
 “존재의지, 영혼의 건축 그리고 그 시적인 시작” _ 박동준

학술 06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2부 _ 김영문

유럽 여행기 07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2부 _ 조성진

기고 08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마중물” / 광주는 지금,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NEWS 09~10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진행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

전북 익산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여성건축인의 역할과 기대



김희순 / 건축사
전북여성건축가회장
(주)윌그룹 건축사사무소
youlkhs@naver.com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여성건축인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국제교류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북여성건축가회는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전북지부로 2013년도에 창립했다. 또한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와는 별개의 단체이다.

〈편집자 주〉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될지 모르니까 현장방문은 오후에 하면 좋겠다는 현장소장의 권고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 가보면 건축학과 학생의 거의 2/3정도가 여학생이다. 신입직원을 남자로 뽑으려면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해야 할 정도로 건축설계분야는 여성화 되어가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학교에서는 여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일정 경력 이상의 여성건축인 수는 현저히 적다. 전북건축사회만 해도 300여 명 중에 여성건축사는 20명 미만인 셈이다. 왜 그럴까?

여자들은 일하다가 몇 번의 경력 단절 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결혼 한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여자들은 직장을 그만둔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 후 바로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지만, 여자들은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후 그만둔 뒤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학교에 간다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포기하는 남자는 없지만 일부 여자들은 그만두기도 한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인력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북여성건축가회를 작년(2013)에 창립하면서 여성 건축가들의 경력단절방지를 첫번째 목적으로 삼았다.

그런 아쉬움을 담아 건축계가 건축가 협회, 건축사 협회, 건축학회, 새 건축사회로 나뉘어져 각자 활동하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통합을 위해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건축가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들 어우러져 함께 활동한다.

건축사 사무실, 구조사무실, 건적사무실, 건설사, 학교, 공기업, 인테리어, 자재 등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함께 한다. 연장자는 젊은 사람의 멘토가 되고, 젊은 사람은 멘토의 멘토링이 되어 서로를 도와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혼자 나서서 못하는 일은 모여서 함께 봉사활동도 한다.

2013년 여름과 2014년 여름에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여 시골집에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전라북도 건축문화 행사에서는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를 주관하여 접수 작품 600여점, 현장 행사 참여 인원은 1000명 이상의 성황을 이루었다. 400여 학교에 일일이 전화 걸어 참가를 부탁하는 열성은 여성이므로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소수의 여성건축사들은 장래 여성화될 건축설계 분야의 후배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접대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선의에 의한 경쟁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덤핑이 아닌 공정한 가격으로 계약 한다.’

‘조금씩이지만 힘을 모아 사회봉사에 힘쓴다.’

‘멘토와 멘토링의 좋은 선례들을 계승하여 아름다운 건축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고, 특히 건축설계 쪽은 고사직전이라고 한다. 나 또한 20년전 개업 초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왜 어려운걸까?, 왜 어려워졌을까?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기준을 마련해 줬다. 하지만 적게받을테니 일을 할 기회를 달라고 돈한푼 안받고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과열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그 덕에 건축주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획(안)을 수집한 뒤 헐값으로 아이디어와 노력을 사들인다.

우리가 용역비로 받은 비용은 점점 적어지는데 지불해야 할 인건비와 부대비용(4대보험) 및 세금은 나날이 증가되어 수익률이 현저히 줄었다. 그런데다가 건설업 경기침체로 물량마저 줄었으니 죽는 소리가 나오는건 당연지사인 셈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고쳐져야 한다.

선배 건축사로서 후배 건축사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기보다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여성건축인들이 그 선두에 서기를 기대해 본다. ☺

midas eGen 과 midas Drawing이 만들고 있는
설계 업무의 변화를 웹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한 건축설계 통합 사이트
www.midasarchi.com

제품 도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상담 신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선 광주건축사 회원들...

- 지난 7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시민안전 결의대회” 개최, 이틀간 5개 구청 앞에서 대시민 홍보활동 나서

최근 아산 신축오피스텔 붕괴사고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안길전)에서는 지난 7월 2일과 3일 시민안전 결의대회와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진행된 시민안전 결의대회는 광주지역건축사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철 부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 안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정명철 부회장은 강연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세세가 놀라도록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안전 불감증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신사동 가로수길 건축 붕괴, 아산 신축오피스텔 붕괴사건까지 건축계의 여러 사건들을 거론하며 “성과와 경제성장 등으로 가려져 있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는 우리 건축사들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강연 이후 회원 200여명은 정재한 건축사((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시민안전 결의문’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부실 건축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관련 재해·재난 발생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하나, 우리 건축사는 관계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리업무 등을 철저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 건축사는 건축주의 위법·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수 외에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건축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건축시장 질서 확립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이어 광주건축사회관 앞에서 안길전 회장((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과 참석 회원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결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이후 각 구청 홍보활동에 나섰다.

먼저 남구청과 동구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건물의 안전, 건축사가...’라는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홍보전단에는 건축사의 업무 내용과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150만 광주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 광주건축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사항 등이 담겨져 있었다.

한 시민은 “최근에 방송과 신문을 통해 건축사들의 부절적인 행위가 알려져 불신감이 없진 않았지만 이런 자정홍보활동으로 건축사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조금은 변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대시민 홍보]



대시민 홍보 이틀날인 7월 3일에는 북구청과 서구청, 광산구청을 돌며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주건축사회 임원진들을 만난 광산구청 민형배 청장은 “건축사님들의 이러한 행동과 의지들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안길전 회장에게 건축사회원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틀간 대시민 홍보단을 이끈 안길전 회장은 “우리 건축사회원들과 시민들이 기본이 바로선 광주, 안전한 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하고 뜻을 모으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활동은 그 시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 광속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AUTODESK 제품 프로모션 안내

2008이하 단종버전의 마지막 할인 업그레이드 기회!

| 기간 | 2014년 7월 18일까지

| 대상 | 오토데스크 전 제품 구버전 보유고객, 신규구매 고객 (* BC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가능)

AutoCAD Architecture 2015

건축전문가를 위한 지능화된 CAD

- AutoCAD 대비 작업시간 최대32%단축
- BIM 기본 제출 포맷인 IFC 포맷 내보내기 지원

Building Design Suite 2015

CAD&BIM을 위한 최상의 S/W

- AutoCAD/ AutoCAD Architecture / Navisworks / AutoCAD Revit/ 3ds Max Design등 10개이상 제품 포함

최대 30%



아이패드mini 증정 (3copy이상 구매 시)

특별 혜택

4_ 설계경기

익산시는 익산시 마동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였다. 공모방식은 일반공개 공모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익산시 소재 건축사의 능력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응모를 권장하였다.

익산시 마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설계경기

발주처 : 익산시 /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주)대성 건축사사무소 김창호 건축사 (자료 미제출)
가 작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송경규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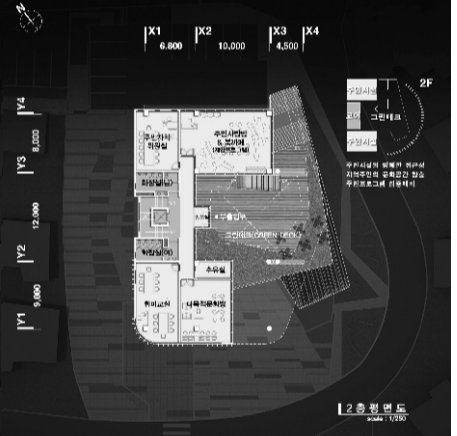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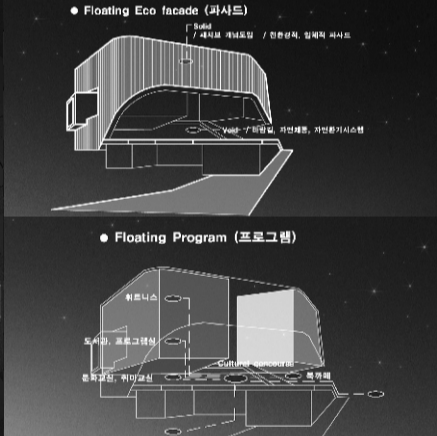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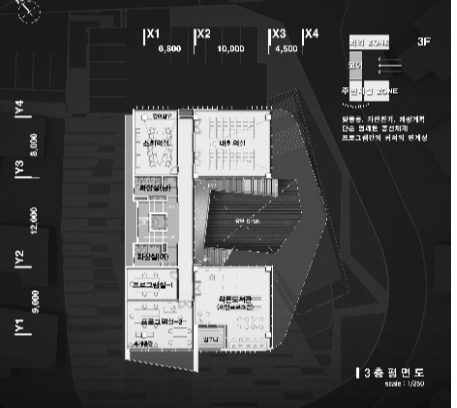


위 치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5길5-4(마동)외 4필지
대지면적 : 1,876.00㎡
건축면적 : 731.24㎡
연 면 적 : 1,997.85㎡
건 폐 율 : 38.98%

용 적 륜 : 106.50%
규 모 : 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티타늄아연강판, 알루미늄루버, 황등석, 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20대(여성전용2대/장애인용1대 포함)

공
문화를 담은 공간
지역커뮤니티와 문화를 담은 모태공간 구현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
(주)길 건축사사무소



위 치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5길5-4(마동)외 4필지
대지면적 : 1,876.00㎡(계획면적:1,680.00㎡)
건축면적 : 761.73㎡
연 면 적 : 1,934.56㎡
건 폐 율 : 45.34%

용 적 륜 : 115.15%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화강석,점토벽돌,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징크,로이복층유리
주차대수 : 20대(장애인용2대 포함)

가작
송경규 건축사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존재의지, 영혼의 건축 그리고 그 시적인 시작”_ 박동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는 설계경기를 통해 약 20여년 가까이 건축설계를 하며 100여개가 넘는 작품을 남겼고, 수많은 건축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많은 후배건축사들을 양성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 편집위원들이 올해로 ‘포에이그룹 운영 20년’ 을 맞은 그의 건축인생사를 들어 보기 위해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사무소에 방문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끄럽고 복잡한 시대를 보냈어요. 고 3때 5.18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 대학을 가셔도 저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며, 설계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데모 판에 기웃거리고 상대 뒤막걸리 집을 왔다 갔다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못된 성질에 바로 싸우고 나왔습니다. 빈둥거리며 놀고 있다 형님께 끌려가서 설계사무소에 면접보고 입사를 했어요. 그것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는 그려보지 않았던 직업인데 막상 시작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책상 앞에 F.L. 라이트 작품 '낙수장' 한 장 붙여 놓고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와 있네요.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확립한 철학이 뭐 있겠어요! 건축학을 전공하는 후배 교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내 작품세계도 알고 행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건축철학이 뭐요?’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하지?” 한 달 뒤쯤 후배가 형님께 딱 맞는 글귀라고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용을 보니 저하고 딱 맞고 또 제가 맞추어 가야 될 것 같은 글귀였어요. 그것이 지금 사무실 입구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存在意志(존재의지), 靈魂(영혼)의 建築(건축) 그리고 그 詩的(시적)인 詩作(시작)” 존재의지라 함은 땅에서 있고 싶은 건축, 땅이 갖고 싶어하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땅이 바라는 건축이죠! 여기에 대해서 영혼이 있는 시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욕심은 크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과욕인줄 알기에 끝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늦둥이가 있어요. 사회책에 제가 설계한 작품이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설계한 작품이라고 자랑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땡 치지마!” 그랬대요. 그럴 만도 하지요. 9시 뉴스 전이나

지역홍보광고에 제 작품이 나올 때면 문화관광과 관계된 작업이 많아서 어깨가 으쓱해질 때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할걸 하는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함께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건축설계에 입문하여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사진 한 장이었고 그의 작품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유기적 건축’이라는 철학도 배웠구요. 어렸을 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따라하기도 많이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복잡한 사생활은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못 따라하고 있네요.(웃음)

국내에는 토방의 한진수 건축사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입문할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실장이셨지만, 국내에서 건축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한진수 선배님보다 더한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다는데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동안 작품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 많지요! 콘크리트 더미에 묻힐 뻔한 적도 있어요. 던진 망치에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IMF 때 대학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공사 좀 그만 북아 먹어라. 사장이 너 보기 싫어서 사무실 앞을 안지나려고 200미터를 뺑 돌아서 간다더라” 슬픈 일이지요. 건축사가 건설회사 사장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사장들이 피하니 사무소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거꾸로 해년마다 유기농 김치를 담가서 몇 통씩 보내주시는 고마우신 목사님도 계시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하루하루를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못된 성격 탓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딸은 아빠는 밖에서는 훌륭하시지만, 가장으로서 또는 아빠로서는 뺑점이에요. 부끄럽고 미안하지요. 그래서 후배 건축사들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삶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하고 싶은 것은 꼭 해보라는 말이지요.

향후 계획 및 포부

사무실을 개업한지가 20년이 되었어요.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시간이지요. 연말에 ‘박동준과 FOR-A 20년의 역사’ 작품집을 만들어 볼 욕심입니다. 부끄러운 과정입니다만 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구요. 조금씩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깨워봐야지요. 건축사사무소가 무슨 큰 포부 있겠어요. “포에이”가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아틀리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무소 출신 건축사가 13명이나 되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포에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분들과 더불어 지역에서 잘 버티어 내길 바랄 뿐이죠. 감사합니다.

취재 : 서재형, 박주현 건축사기자



광주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중인 박동준 건축사



▲ 땅끝전망대

박동준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무안고등학교



▲ 이순신 명량대첩승전광장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김영문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kym@jbnu.ac.kr

제1부 : 바람(풍하중)에 대한 이해(제55호, 2014년 6월)
제2부 : 건축물에 미치는 바람(풍하중)의 영향

시가지나 주택지 등, 주위의 건물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규모가 큰 건물이 건설되는 경우, 이러한 건물에 가려진 바람(풍)은 건물의 벽면을 따라서 상하 좌우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주변의 상황 등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흐름이 되어, 국부적으로 강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난류성분이 강한 바람으로 되기도 한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풍설계 분야에서 국내외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문 교수께 지면 강좌를 청해 보았다.>

건축물에 미치는 풍하중의 양상

제1부에서 언급 했듯이, 일반적으로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바람은 지표면 조도의 영향을 받아서, 지상부근에서는 약하고 상공으로 올라 갈수록 강하게 불게 된다. 이러한 바람이 건물에 작용하게 되면, 건물 높이의 70% 정도 되는 곳에서 상하 좌우로 나누어져 벽면을 따라서 흘러간다. 좌우로 흘러간 바람은 건물 측면에서 아랫방향으로 경사지게 흘러내려가게 된다. 벽면을 따라서 흐르는 바람은, 건물의 각진 모서리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회전류인 와(vortex shedding)로 변화하면서 전보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회전류인 와는 건물의 후면 영역까지 다다르게 되기도 하면서 후류(wake)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의 흐름을 이루게 된다.

<그림 1>에서는 바람(풍)이 고층건물에 작용하게 될 때, 외력(aerodynamic load)으로 작용하게 되는 풍하중(wind load)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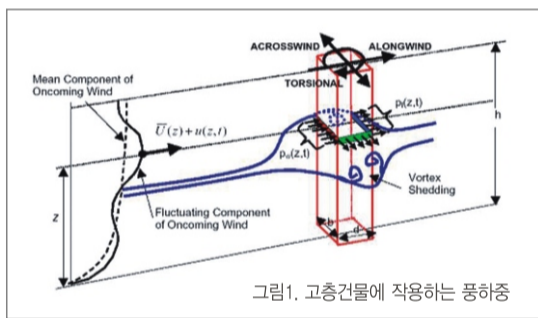


그림1. 고층건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그림 1>의 좌측 부분에 나타난 풍속분포는, 대기경계층 내의 지표면 조도상태와 높이에 따라 변하는 풍속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변동풍속성분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때 바람(풍)의 주방향(main wind direction)은 평균풍속이 작용하는 방향(건물의 정면과 수직이 되는 방향)이 되는데, 이런 방향을 평균풍속방향(평균류 방향 혹은 along-wind direction)이라고 하고, 건물 측면에서 회전류인 와로 인해 측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횡방향(across-wind direction)이라 하며, 건물 후면의 후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비틀림방향(torsional-wind direction)이라 한다. 이처럼 풍하중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방향의 풍하중 작용에 의한 풍하중 효과(wind load effect)인 응답거동(정적인 응답과 동적인 응답으로 진동변위와 가속도)도 각각의 방향 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제1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경계층 내에서 부는 순간풍속은 3차원 벡터량으로 <그림 2>처럼 나타낼 수 있다. 즉, 평균풍속을 \bar{u} 라고 할 때, 변동풍속성분은 평균풍속방향의 변동풍속 $u(t)$ 와 횡방향의 $v(t)$ 그리고 수직방향의 $w(t)$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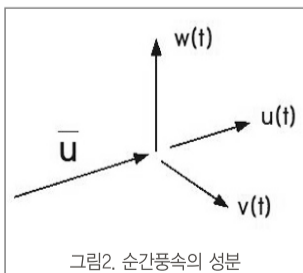


그림2. 순간풍속의 성분

<그림 1>에서와 같이 고층건물에 풍하중이 작용할 때, $u(t)$ 는 평균풍속방향의 동적응답 즉 진동변위나 가속도응답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어 평균풍속방향의 변동풍하중(fluctuating along-wind load)을 구성하는 핵심성분이 된다. 그리고 횡방향의 경우는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회전류인 와의

작용 때문이며, 비틀림방향의 경우는 주로 건물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후류 때문이다.

그런데 $u(t)$ 에 대해서는 실측이나 이론적 해석에 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평균풍속방향의 변동풍하중을 구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회전류인 와로 인한 횡방향의 변동풍하중(fluctuating across-wind load)이나 건물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후류에 의한 비틀림방향의 변동풍하중(fluctuating torsional-wind load)을 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이론적(해석적) 접근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쩔 수 없이 풍동실험(wind-tunnel test)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하중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변동풍하중이나 지진하중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중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동적인 하중(dynamic load)이 고층건물과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면, 그러한 동적인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나 질량(mass)과 같은 동적인 특성(dynamic properties)에 따라 동적응답효과(응답 진동변위나 가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동적인 하중의 특성 역시 대상 구조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층건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동적특성을 잘 알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상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시스템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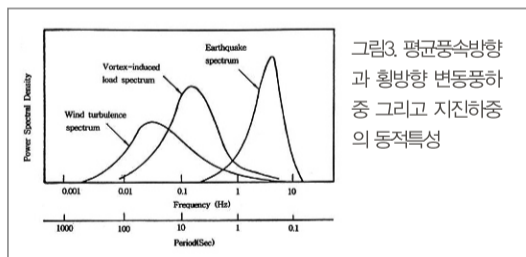


그림3. 평균풍속방향과 횡방향 변동풍하중 그리고 지진하중의 동적특성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풍속방향과 횡방향 변동풍하중의 스펙트럼 값은 거의가 1Hz 보다 훨씬 적은 진동수 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반면에 지진하중의 경우는 1Hz 이상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 값은 평균 풍속 방향의 경우는 0.04Hz~0.05Hz사이에, 횡방향 변동풍하중의 경우는 0.2Hz~0.3Hz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나, 지진하중의 경우는 5Hz~7Hz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고층건물의 경우, 높이가 높아질수록 고유진동수는 적어져 보통 0.2Hz~0.4Hz 사이에 있게 된다. 즉, 횡방향 변동풍하중의 최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진동수영역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공진(resonance:진폭이 큰 동적하중의 진동수 성분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게 될 때 진폭이 매우 크게 되는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에 의한 매우 큰 진동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평균풍속방향의 풍하중 진동수 영역에도 노출됨으로써 횡방향의 영향보다는 적지만 그 역시 염려된다.

그러나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의 고유진동수가 지진하중의 최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진동수영역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풍하중에 대한 저항성 향상 기법

평균풍속방향의 동적응답보다는 횡방향의 동적응답이 더 크고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측면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여 횡방향의 동적응답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는 회전류인 와(vortex-shedding)의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흐트러뜨려 와의 강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고층건물의 평면형태 특히, 모서리 부분을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변화시키는 설계기법이 사용되었고, 또한 고층건물의 높이에 따라 평면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기울기(taper)를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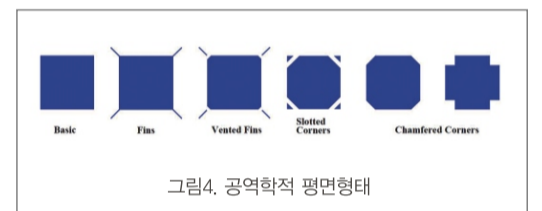


그림4. 공역학적 평면형태

최근에 건설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그림 5>와 같이 풍하중의 저항성을 높이도록 평면형태가 설계되었으며, 높이에 따라 기울기와 평면에 변화를 주었다. 즉, 측면에서 발생하는 회전된 와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동시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를 흐트러뜨려 그 강도를 낮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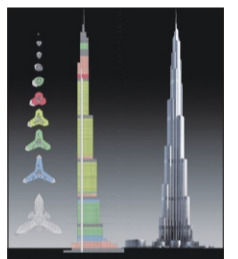


그림5.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대만 타이베이에 세워진 101타워에서는, 건물 측면에서 발생하는 회전된 와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 건물의 모서리 부위를 변형시키고 동시에 건물 상층부에 구형체의 진동소 질량 감쇠 장치(tuned mass damper, TMD라고 약식표기함)를 설치해서 건물의 풍하중에 의한 동적응답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림6 타이베이의 101타워와 구형의 TMD

TMD는 질량과 강성 그리고 감쇠장치를 갖추고 있어 자체의 고유진동수를 갖게 되는 장치이다.

TMD는 건물이 풍하중에 의해 동적응답 즉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고층건물의 진동과 위상이 다르게 공진시켜 작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관성력으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풍하중에 의한 진동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TMD는 풍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고층건물의 진동 변위와 가속도응답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외에도 거대한 물탱크나 튜브 등을 이용한 tuned liquid sloshing damper 장치도 최근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_ 2부

» 프랑스 파리

조성진 주부
광주 서구 금호동

여행을 하면서 도시의 이미지답게 가이드님의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재미중의 하나이다. 신사의 도시 런던답게 버버리 레인 코트를 입고 블루 배지의 위용으로 편하게 인솔해 주셨던 런던 가이드님, 낭만과 예술, 패션의 도시 파리의 이미지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스러움과 여유, 파리의 브랜드를 잘 드러내주셨던 파리 가이드님, 물론 두 분 다 박학다식하시고 유머러스함에 런던과 파리 여행의 추억속에서 큰 조연들이었다.



▲프랑스 파리로 가는 유로스타 밖 들녘 ▲막 역을 나와 도착한 파리의 거리

어느 여행이 다 그렇듯 아쉬움을 남기고 런던을 떠나 유로스타를 이용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2시간 30분 동안 38km의 해저터널을 지나 최고 300km의 속도로 일등석에 앉아 브런치를 즐기며 프랑스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분명 낭만적이게 파리로 내달았다.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난번 여행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여행에서는 잠깐 잠깐 졸다 깨어도 보이는 건 저 멀리 언덕까지도 올리브 나무였는데, 이번엔 온통 푸른 밀과 노란 유채다.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다음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창밖 풍경은 그저 아름다웠고 실제로도 아름다웠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 역을 빠져나오자 파리의 도시 느낌이 런던과 비교되어 느껴진다. 깨끗하고 반듯한 런던이었다면 사람들의 생김새와 거리 분위기에서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파리였다. 이 느낌 그대로 나는 파리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술가들의 아지트라는 몽마르트 언덕 ▲햇살을 즐기는 파리저녁
▲프랑스의 진미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프 ▲메이드 인 프랑스 와인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 몽마르트 언덕, 19세기 유럽 예술을 이야기 할 때 반 고흐, 피카소, 달리,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화가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날씨가 좋았던 그 날, 파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햇살을 즐기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또는 거리낌 없는 연인들은 키스로 자유스러움과 여유를 느끼고 있었다. 낭만과 예술과 자유분방함이란 파리의 수식어가 맞는 것 같았다. 언덕 위에 위치한 몽마르트르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데르뜨르 광장에는 관광객들의 초상화나 크로키를 그리는 화가들과 카페들, 이를 즐기 위한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골목마다에는 화가, 시인, 배우 등 예술가들이 살았던 생가와 그들이 자주 거던 카페와 음식점 등 가볼만한 관광 명소가 많았다. 하지만 다 가보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던 몽마르트르 언덕은 다시 한 번 둘러 보고픈 매력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와 파리에서의 첫 식사로 달팽이 요리와 와인을 즐겼다. 파리에 왔다는 설렘과 뿌듯함으로 다행히 스물스물 기어가는 달팽이의 모습은 떠오르지는 않았다. 같이 나오는 바게트 빵과 함께 먹어도 맛나고, 버터와 마늘 그리고 파슬리를 양념해 느끼해 질 수 있는 맛은 와인으로 감싼다. 이러하니 파리의 느낌이 충만 되면서 낭만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행기간 동안 쪽 와인이 빠진 날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으면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내부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세 박물관 ▲퐁피두 센터

파리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총 세 곳으로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회화와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이 걸릴 정도로 유물이 방대하다고 한다. 루브르 정문에 위치한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당시 큰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위치한 유리 피라미드와 주위를 둘러싼 시원한 분수 물줄기는 박물관 건물의 웅장한 고색 대비 햇살에 반짝이는 투명한 유리빛깔과 대조되면서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경쾌하게 바꿔주는 듯하다. 수많은 작품들 중 유명한 작품들은 구름관중이 몰려강충강충 뛰면서 감상해야 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름다운 자태 밀로의 비너스 상, 미켈란젤로의 조각상들,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등등.

작품을 보면 아~ 이 작품 하는 것들이 이 곳에. 그리고 기존의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반 고흐, 밀레, 르누아르, 드가, 고갱, 마네, 세잔 등 교과서나 잡지에서 보아왔던 친숙한 화가들의 유명 작품들을 대거 볼 수 있어서 마치 미술책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초의 근대작품부터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영국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의 작품으로 건물의 철근과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노출되어 안과 밖이 뒤집어진 구조로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피카소, 마티스, 미로 뿐 아니라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와야 했다. 그래도 앞에서만 사진으로 남겨온 것이 아쉽기는 하나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을 관람하고 온 것만으로도 뿌듯했고,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 파리에 내가 와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의 도가니였다.



①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 ② 나폴레옹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개선문 ③ 세느 강변의 콩시에르주리와 폰네프 다리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만국박람회 때 세워진 에펠탑, 파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체위기에까지 갔지만 프랑스를 상징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파리 시내를 구경하면서도 순간순간 골드 빛 에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만큼 파리와 일체처럼 인식되어진 탓인가 보다. 낮으로 밤으로 에펠탑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게 되는 이유였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모습도 멋지고, 밖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의 모습도 멋지다. 또한 샤토 궁전에서 보는 에펠탑의 야간 조명 쇼는 매시 정각마다 10분간 반짝이는데, 낮의 우아하던 에펠탑은 불링불링 화려한 에펠로 변신한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온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파리의 건축물과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는 파리를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센강 유람도 잊을 수 없다. 말로만 듣던 폰네프의 다리,

사랑의 다리, 예술의 다리 등 아름다운 다리들과 파리의 주요 유적지, 옛 건축물과 현대의 건축물도 볼 수 있었다. 어 이 보다 더 좋은 유람도 없는 것 같다. 날씨가 정말 좋았던 날이라 강변을 앉아 한가롭게 책을 읽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람선이 수시로 오가는 길목에서도 속옷만 입은 채 햇살을 즐기며 썬탠 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그런 모습에서 문화적 차이도 느껴졌지만, 그들을 보는 것 또한 관광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핫(hot)하고 낭만적으로 파리를 딱 차게 즐긴 날이었던 것 같다. 프랑스와 파리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물인 에펠탑에 오르고, 세느 강변을 유람하며 도시의 역사와 현대의 모습을 감상했다. 샹젤리제 거리의 개선문과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 그리고 콩코르드 광장에서의 차 한 잔, 거기에서 집밥만큼 맛났던 한식까지.



▲신개선문에서 바라본 라데팡스 건축물들 ▲센 강변 현대식 건물들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 ▲베르시 빌라주

파리의 신도심지구 라데팡스,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콩코르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을 지나 라데팡스의 신개선문까지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계획이라 느껴졌다. 신도심에는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찾는 명소라 한다. 여유와 낭만을 즐기다 숨 쉴 틈 없이 초고층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대식 미래도시. 그 대비가 흥미로웠다.

모든 하루 일정을 마치고 몇 명과 예정에 없던 야간투어를 나섰다. 도심 재생지역 베르시 빌라주를 찾아 나서면서 파리 지하철을 경험해 보았고,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쫓아오며 오랜만에 뛰어보기도 했다. 마치 어릴 적 낯선 지역으로 소풍가는 것 마냥 설렘과 즐거움이었다. 참고부지였던 곳에 세워졌다는 책을 펼친 형상의 프랑스 국립 도서관도 카메라에 담아보고, 세느강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이 디자인센터로 활용되어지는 곳도 가보았다. 철길을 따라 와인을 운반하던 창고들은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쇼핑몰과 레스토랑, 와인가게, 갤러리 등으로 개조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복사하듯 지어지는 건물보다 지역을 특성을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런던과 파리, 항상 그렇듯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때 제대로 못 본 것이 안타깝고 못내 아쉽다. 그래서 다음이란 기회가 또 있다면 이번에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해 내지 못한 부분들을 꼭 채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또 아쉬워하겠지. 사진도 찍어야 하고, 설명도 들어야 하고, 뒤쳐지지 않아야 하고, 늦지 않아야 하고, 길 잃어 목지 말아야 하고, 도둑놈도 조심해야 하고...

아무튼 저질체력으로 무사히 잘 다녀온 것에 감사하고,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북남쓰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여행도 좋은 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희망하여 본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를 연재해 주신 조성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마중물”

안용훈 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anhun3097@korea.kr



버스가 달린다.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다들 새벽에 출발해서 피곤할 텐데 조는 사람 하나 없이 다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도란도란 이야기 중이다.

“DDP가 무슨 약자야?”, “짓는데 얼마나 든거래?”, “꼭 우주선처럼 생겼던데, 안에는 어떤 모양일까?”. . . 이렇듯 많은 궁금함을 싣고 서울로 가는 이 길은 ‘2014도시재생 선진지 투어(Tour)’다.

매년 두 차례씩 도시재생을 화두로 일반시민과 학생, 공무원, 그리고 건축사, 교수 등 건축·도시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전국 곳곳의 선진지를 찾아 떠난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선진지 견학은 옛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창조산업의 발신지로 바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방문지다. 또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주거지역을 관광명소로 바꾼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한 인사동 문화지구도 견학 대상지다.

그중에서도 이번 참가자들은 이라크 태생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3월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건축물 외부와 내부에 직선이나 벽이 없이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공간적 유연성을 특징으로, 우주공간처럼 느껴지는 대규모 공간감을 구현하고 있다.

실물로 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규모의 웅장함과 건축의 독특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시선을 사로잡고 모두를 압도하는 매력을 발산한다. 하지만, 기형적인 내부공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동대문의 역사성에 무지한 외국 건축가를 선정하는 바람에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일제 당시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흔적이 지워졌다는 비판에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산업을 위한 건축물이기에 그 건축적인 아름다움은 충분하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과 기업, 주변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적·문화적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내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하는 광주시에 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여부는 얼마만큼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낡고 오래된 도심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쇠락한 부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곳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라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요즘에는 획일적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어떠한 작업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 재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후손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만들고 추억을 쌓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견학은 우리 지역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반영해야 하며, 도시로서 광주가 어떤 미래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낡고 오래된 동네마울과 골목길에 대하여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고 좀 더 활기차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누리고 싶다면 도시재생 투어에 참가해 보자. 획일화된 도시 미학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사람과 장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광주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보자.

건축사 만평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광주는 지금,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경훈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hooni46@naver.com

광주시가 내세우는 이 슬로건이 현재 광주라는 도시에 어울리는 명칭인지에 대한 의문이 문득 든다. 작년 이맘때쯤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미술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광주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 심정으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하 ‘시전’으로 명명함.)’에 대해서 꼬집는 글을 썼었다.

물론 학생이 쓴 그 단한번의 기사로 인해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광주시에서는 그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다. 결국 광주가 주최하는 큰 행사인 미술대전은 이미 학생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다시금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쓴다.

건축학, 즉 설계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공모전에 참여한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모전은 학교와 지역을 떠나 자신의 디자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지도 있는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모전과 학생들은 더욱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광주·전남권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공모전 중 하나가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시전’이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전남대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건축학부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시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눈에 띄게 시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작품 접수 현황을 보면, 그러한 현상이 비단 전남대학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학생들은 당연히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여러 학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씁쓸한 결론이 나왔다. 바로 공명정대해야 할 ‘심사기준’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아닌 학교별로 상을 나누어서 준다는 소문이 슬며시 돌기 시작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그 소문이 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시에서 공표한 심사기준에 ‘~가급적이면 표현 양식과 출신 학교, 성별, 지역별, 문종별 안배를 염두에 두고 심사하려고 노력했으며...~’라는 내용이 당연하다는 듯 당당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공모전은 작품을 출품하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배경, 출신학교, 성별, 나이 등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출품한 작품만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모든 공모전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조건이 무시되고 진행되는 공모전은 더 이상 공모전이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공모전은 그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모전은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이 입상할 경우 입선, 특선, 최우수상 등 어떠한 상을 받더라도 그것은 노력에 대한 값진 보상이며 그 사람에게 자부심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줘야 한다.

광주미술대전은 광주광역시의 이름을 걸고 치러지는 광주의 공모전이다. 이렇게 광주를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이 자꾸만 무시 당하고 권위가 낮아지는 것은 결국 광주의 디자인 수준을 낮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 하고야 말것이다.

광주시가 ‘기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분을 잊은 것 뿐’이라면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고 학생들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광주시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도시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천일석재 CHONIL STONE



음수대 / 음수전 / 볼라드 / 의자석 / 간판석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천일석재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문화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일석재대표 강 현 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진행

– 지난 7월 8일 장흥군 지역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구에 지붕개량, 도배 등 수리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국원식)에서는 지난 7월 8일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상발마을회관에서 ‘2014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원식 회장을 비롯한 장흥군 김성 군수와 장흥지역건축사회 정기호 회장, 광주여자대학교 학생 30여명, 마을 주민 등 100여명 참석했다.

대상 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로 지붕개량과 도배, 장판, 문교체 등을 했다. 이날 국원식 회장은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로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건축사들이 이와 같이 사회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씨아이엠(주)와 양해각서 체결

– 구매회원에게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7월 1일, 올해 초 BIM 및 CAD프로그램 공동 구매를 진행한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씨아이엠(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매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공동구매를 통해 상호 협의한 조건 및 특별할인 공급가로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Autocad Upgrade

세미나 제공(연1회 광주 방문 교육)과 BIM 세미나 제공, 구입 제품별 교육 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구매일부터 1년까지 제품기술지원(원격, 전화)과 Subscription 갱신 도래 시 일괄 공동 갱신 계약으로 추가 할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는 한국·씨아이엠(주)(02-772-5832/담당자 이주희 대리)로 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광주 후쿠오카 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 13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오는 7월 25일까지 신청서 받아, 작품 제출은 8월 29일까지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사업 일환으로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을 진행한다. 출품작품은 2013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광주건축사회회원이면 누구나 출품가능하다.

작품규격은 JPEG, PSD 파일(규격 A1사이즈 1판 / 594×841mm)로 제출기간은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이메일로 (gjkira@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여성건축가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봉사활동 진행

– 지난 6월 29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정보화마을 찾아 도배와 청소 등



전북여성건축가회(회장 김희순 건축사)는 지난 6월 29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에 위치한 완창정보화마을을 찾아 농어촌 집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여성건축가회원 20여명과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충렬 교수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함께 도배 및 청소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전북여성건축가회는 전북지역 여성 건축가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4월에 창립됐다.

성 건축가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4월에 창립됐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도시재생선진지 투어 성황리 개최

– 일반시민과 건축사 등 130여명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북촌한옥마을 등 선진지답사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가 주관하며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협찬한 2014 도시재생선진지 투어가 일반시민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6월 21일,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도시재생 선진지 대표사례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와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거리 등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약 1달여간의 투어단 모집에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건축사를 비롯해, 일반시민, 교수, 공무원, 학생 등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문의하였으며 인원수 제한에 따라 130여명 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이번 투어에 참석한 한 시민은 “3년 전부터 진행된 투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선진지 사례를 잘 해석하여, 우리 광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타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도시정책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하반기에도 경남 창원시와 통영 등 경남권으로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 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 대상 100만원,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주제로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골목길)을 주제로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고 작품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12"×16" 사이즈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제10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대상 작품

대상작 1점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2점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지급 되는 등 총 상금 400여만 원이 걸려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자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062)521-0025~6)로 하면 된다.

대학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 개최

– 지난 6월 30일부터 5일간, 학생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대학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염환석 광주대 교수)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성과의 공존’이란 주제로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디자인캠프에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건축학(공학) 관련 학과 재학 중인 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교수 및

건축사 20여명이 튜터로 참가해 학생, 교수, 전문가 등이 상호소통하는 디자인캠프로 운영되었다. 주제로 주어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적 도시의 환경 안에서 우리의 역사로 남아있는 진남관은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생과 튜터가 함께 고민하며, 여수시 진남관 일대에 대한 대안을 다양하게 계획해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대학생 디자인 캠프는 대학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의 대표적인 연례행사로 실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캠프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임대	복합기	프린터	컴퓨터	시공	네트워크	프로젝터	서버
프로그램	AutoCAD	CADPower	Revit	Adobe	3D-Max	Sketchup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복사용지	유지관리	A/S	수리	설치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

— 지난 6월 27일 부산에서 후쿠오카회 방한단과 교류협력 협의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과 신정철 국제위원장 등이 지난 6월 27일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일본 JIA후쿠오카회 마쓰이에 마사카즈 회장 등과 만나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약 16년간 교류 중인 JIA후쿠오카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자 추진됐다.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협의단과 후쿠오카회 방한단은 2014 후쿠오카 광주건축교류전을 오는 10월 중 또는 11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일정 등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으며,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전시회가 없을 때에는 '지역 건축이야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JIA후쿠오카회가 주관하는 규슈지역 학생디자인캠프의 차기대회에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안길전 회장은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우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가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상호 교류전과 관련하여 광주건축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교류전 출품작품을 모집 공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06.30공포, 07.01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43호, 2013.12.30.공포, 2014.7.1.시행)됨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06.30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포함될 성능등급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04호, 2014.06.2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06.23.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욕실 등에서의 미끄러짐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욕실,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마감재료가 도자기질 타일인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의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6.1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정 원 건축사 / 정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광주건축사회관 3층)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북구 서하로 379 6층(문흥동)
- * 폐업**
 - 이영곤 건축사 / 나영 건축사사무소
- * 변경(소재지)**
 - 최경락 건축사 / 리일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신화로 62번길 3-38 1층
 - 김태욱 건축사 / 아름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상무구역오피스텔 306호(치평동)
 - 명성원 건축사 / 윈디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효덕로 200 2층(노대동)
 - 주정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터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13-47(수완동)
- * 부고**
 - 이왕범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6월 28일
 - 정순중 건축사 / (주)예광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6월 14일
 - 강남구 건축사 / 강남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6월 12일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박수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행
전남 무안군 삼합읍 남악5로 60번길 35-15
- * 변경**
 - 김동찬 건축사 / 타워 건축사사무소
전남 신안군 임해읍 임해로 849-0(1층)
- * 부고**
 - 김병삼 건축사 / 제일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6월 10일
 - 김용균 건축사 / 유로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6월 19일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허택 건축사 / 가온 건축사사무소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44-1(영등동)
- * 변경(소재지)**
 - 송영섭 건축사 / (유)영화 건축사사무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5(선은리)
 - 박용규 건축사 / 소망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동서로 7-13(낙평리)
 - 이준호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바골9길 48(중화산동1가)
- * 부고**
 - 문병률 건축사 / 폭림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6월 9일

News 광주·전남·전북 7월 지역축제안내

- ▶ 04. 04 (금) ~ 11. 11 (화)까지 제9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http://bookmarathon.gen.go.kr/>) 접속
- ▶ 07. 12 (토) ~ 07. 19 (토)까지 하소백련축제 - 전북 김제시, 청운사, 하소백련지 일원
- ▶ 07. 19 (토) ~ 07. 20 (일)까지 2014 광주 베이비페어 - 광주 서구, 광주 프리미엄아울렛 2층전관
- ▶ 07. 19 (토) ~ 08. 10 (일)까지 고창 해바라기 꽃잔치 - 전북 고창군, 고창화원농장
- ▶ 07. 25 (금) ~ 07. 27 (일)까지 2014 영광 갯벌축제 - 전남 영광군 백부위해수욕장 일원
- ▶ 07. 26 (토) ~ 08. 03 (일)까지 제42회 강진청자축제 -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일원

※건축허가관련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건축사의 역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며 건축사 본연의 업무이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박동준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양병범 (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광주건축사신문 500,000원
- 한국씨아이엠(주)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미디어(Media);미디어 아트(Media Art)와 건축(Architecture)

1)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단순히 예술성이 부각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작업기술의 향상으로 시간의 단축과 시스템의 간소화, 더 넓은 분야의 총체적 집약 등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의 효율성, 경제성,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3D Model 프로그램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좀더 용이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준공 후 모습도 예측 가능케 하여 시공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미디어의 발전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미디어의 발전이 건축 예술성의 진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들도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산물이다. 이것들이 과연 예술성을 부여하고 있나?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건축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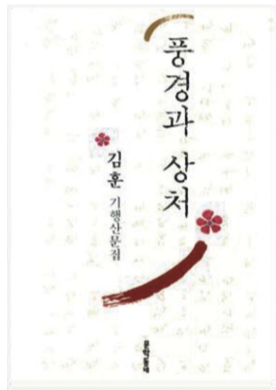
만 아니라 거리의 이미지마저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에 반해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는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와 이미지 변화를 부여하게 되었다. 미디어 아트는 건축에 있어서 보여지는 Facade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 건축표피 즉 Facade는 건물 전체의 인상을 단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이나 브랜드의 이미지 등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식이나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이퍼 미디어 파사드가 진화하고 있다. 1)이미 미디어에 포화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미디어 텍스트는 '미디어 현실(media reality)'이 실제 '현실(reality)'보다 더 '현실적인(real)', 가상의 '초현실(hyper-reality)'을 수용자에게 보여준다. 미디어 아트는 이러한 형식을 건축에 투영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을 반영한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이라는 분야는 우리사회에서 디자인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가장 큰 texture를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구획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상과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요소는 경제성의 논리가 크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 경제성을 쫓다보니 특히 우리나라 사회같은 경우는 획일화되고 삭막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발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몇 배는 빠른 성장을 달려왔기 때문에 문화의 욕구와 탐미성의 욕구를 배제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외국의 경우 건축물이 이루는 디자인 패턴을 깨뜨리지 않고 간판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시선 비중에 있어서 미적 요소를 갖춘 건축물이 주가 되고 광고는 부차적인 인식을 유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자체가 경제논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들도 공공공간에 대한 배려와 미적 인식보다 경제논리를 더욱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양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태를 개선하는데 건축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아트가 건축과의 관계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부분과 더불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융화되어야만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한다. 결국 미디어란 개념은 모든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아트라는 요소가 부합되는 과정이 단순히 시각적 효과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심화된 개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책 소개

「풍경과 상처」

김훈, 문학동네, 2013.10.21



드라마 이순신의 원작소설인 '칼의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훈의 '풍경과 상처'는 작가가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한 기행산문집이다.

그는 서문에 '나에게, 풍경은 상처를 경유해서만 해석되고 인지된다는 문장으로 이 책의 독서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책은 총 24개의 소재로 되어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역사속의 유명한 인물들을 풍경에 끌어들이 그들의 상처로 해석한 기행문이 5편, 근현대 작가들의 세계를 통해 본 문학여행이 7편이고 자연 풍경은 12개로 구분되었다.

역사속의 인물들은 다산초당의 정약용과 보길도의 윤선도, 소재원의 양산보, 겸재의 월송정, 김정호의 후포, 남산의 김부식을 들 수 있다. 작가는 장소에 깃들어있는 인물들의 심연속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다산을 표현하길 '정다산의 생

애속에는 사랑과 증오, 긍정과 부정의 두줄기 산맥이 겹쳐서 뒤틀린다. 그 두 줄기 산맥사이로 치욕의 바다는 깊숙이 밀려들어와 있다. 그의 치욕은 긍정해야 할 것들은 순결한 감동으로 긍정해버리는 그의 운명에 대한 정직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양산보가 스승 조광조의 죽음이후 근본주의자의 낙원으로 꾸민 소재원을 '자유와 욕망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 평하고 '여름의 소재원에서 실낙원의 슬픔은 수목과 더불어 무성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근대작가들에 대한 문학비평적 글은 신경숙의 문체, 정현종 날기와 기기, 천상병이라는 풍경, 김종철 오이도, 서정주의 질마재를 들 수 있다. 이 글들은 장소에 대한 여행이러기 보다는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김훈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행문은 북한산, 한강/행주산성, 섬진강/구례하동, 울속도, 전군가도, 담양수북, 운주사, 파주/문산, 소래/부안, 서해/대부도, 울진 성류굴을 다루고 있다. 작가의 흔적을 보면 산보다는 물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 중에서 울진 성류굴의 제목을 '깊은 곳에 대한 성찰'로 표현하듯이 작가는 석회암 퇴적층이 만들어놓은 굴을 통해 신석기 움집의 부엌을 통해

김홍주
N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벗어내는 연금술의 결정체인 따스함과 밥을 연상하고 온돌의 구들과 마루사이에서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마루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온돌과 부엌의 깊은 곳을 통해 탈논리성의 따스함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제 모습과 제 냄새를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깊은 곳은 아마도 부엌 바닥에서 끝나는 것 같다'고 표현하듯 지하층에 있는 성류굴을 '순결해서 무의미한 시간과 공간의 집적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동굴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작가의 내면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 하였다.

책을 덮으면서 아! 작가의 새로운 시도였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성패는 독자에게 달려있다. 건축가라면 한번쯤 가보았을 곳들이 많기에 울여름이 책속에 나온 곳을 가보는 건 어떨까 한다. 작가는 '화가가 팔레트 위에서 없었던 색을 빚어내듯이 나는 이미지와 사유가 서로 스며서 태어나는 새로운 언어를 도모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이 책은 기행문을 벗어나 역사를, 철학을, 문학을 중흥무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에게 권하고 싶다.

사진속 이야기 1



만남
저 다리 하나의 만남으로
우린 또 수많은 만남을 기대하겠지
모든 만남들은 항상 설렘을 가져온다.
-전남 여수 신기항 금오도 가는 배에서

사진속 이야기 2



시골버스
비오는 창밖 시골 풍경을 향해 그림을 그리던 저 조그만한 손을보며 어릴적 김 서린 버스 창문에 할머니의 얼굴을 그리던 내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